보원사지 관광자원 활용 싸고

市 - 불교계 마찰

서산시, 사지주변 개인토지 매입 추진중

조계종, 사적지내 보원사 재건 "땅 안판다"

창건에서 폐허가 되기까지 모든것이 신비에 둘러싸인 서산 보원사지가 발굴된다.

신라말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였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원사지가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종합 정비된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이번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을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송의정)는 3월 21일 사적 제 316호 충남 서산 보원사지에서 개토식을 갖고 200일간의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4억원이 투여되는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와 탑을 중심으로 한 사역중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되며 출토되는 유구와 유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철저한 현장 기록을 거친후 임시전시공간을 마련해 일반에게 공개된다.

보원사지는 그동안 창건에서부터 폐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만 남아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창건 연대 및 중심 사역의 범위와 구조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발굴조사에 이어 서산시는 2016년까지 총 136억원을 들여 보원사지 전체 발굴과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인근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및 개심사(대웅전 보물 제143호),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사적지내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조계종이 사적지 내 615㎡의 땅과 건물을 증여받아 보원사(주지 정범)를 재건하고 제7교구 수덕사 말사로 등록하면서 첨예한 논쟁이 시작됐다. 보원사는 사지가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서산시의 토지 매입 통보에 매각 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보원사 주지 정범 스님은 "보원사지 발굴조사는 문화재 전문위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가 왜 강경책을 쓰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서산시가 불교계와의 상의 없이 발굴조사를 시작한 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원사지를 관광지로 만들어 재정확충을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도 지난해 서산시에 공문을 보내 "백제시대 최대 사찰터로 추정되는 보원사지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선사들의 얼을 등한시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 문화관광과 박복수 계장은 "현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사지 주변 개인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가고 있으며 보원사가 토지 매각을 거부할시 강제 수용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사지 발굴 및 정비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폐사지가 관광지로 개발되기 보다는 신앙의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행정당국이 정비 계획을 세울 때도 불교계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그동안 불교유적지들이 지방 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관광지로만 개발되어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불교 유적지인 만큼 사찰로의 복원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발굴 및 정비 계획을 세울때도 종단과 협의를 통해 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서산 보원사지는 고려시대 대 가람의 사격을 갖추었으나 현재 보물 제102호로 지정된 석조, 제103호 당간지주, 제104호 5층석탑, 제105호 법인국사보승탑, 제106호 탑비 등 석조문화재만이 남아있다.

김두식 · 노병철 기자 doobi@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5>

이완 시간

용수철이 단단할수록 이완시간 짧아

깨달은 자, 외부자극에 흔들리는 시간 "0"

한 스님이 제자와 함께 생선가게를 지나가게 됐다. 스님은 생선이 맛이 있겠다고 말했다. 절로 돌아온 후, 실망한 제자가 스승에게 도를 닦았다는 스님이 어떻게 생선을 보고 마음을 뺏길 수 있는가하고 물었다. 스님은 '나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너는 아직 마음에 두고 있는가' 라며 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 초기 상응부 경전에는 부처님은 두 번 화살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에게도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화에 다시 집착해서 남에게 화를 옮긴다든가, 혹은 화를 더 크게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이 두 이야기에서 집착하지 않는 깨달음의 편린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생활에서 큰 괴로움은 첫 화살 자체보다, 이 화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집착의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웃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을 때, 실제로는 그 말 자체보다도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잘 해주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라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집착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과학과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이완 시간(relaxation time)' 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힘이 외부에서 가해 졌을 때, 어떤 물체가 변형을 일으킨 후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는가를 나타내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당긴 후, 놓으면 변형을 일으킨 용수철이 출렁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이완 시간은 용수철의 물성에 의해 좌우된다. 용수철이 단단할수록 이완시간이 짧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 실제로는 삼라만상에서 항상 일어난다. 이완시간은 물질의 성질을 추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형광등을 끄고 나서 한동안 형광등이 약한 빛을 발하는 것 또한 형광등 표면에 칠해진 형광물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완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형광등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예로, 반도체 회로를 들 수 있다. 반도체 회로에 전압을 가하면 트랜지스터의 전자가 힘을 받아서 속도를 내게 되는데, 이를 외부에서 전류로 이용한다. 전압을 껐을 때, 다시 속도가 0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짧을수록, 다시 다른 전압을 신호로 가해줄 수 있으므로 빠른 회로가 된다.

우리의 감정 또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신경신호에서 끊임없이 만들어 진다. 같은 사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는 반응하는 방법을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인 DNA 서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후천적인 노력이나 습관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한다.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이러한 감정이 지속하는 시간(이완시간)이 신경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알 수 없다.

깨달은 자의 이완시간은 어떨까 상상해본다. 매 순간 깨어있는 그들의 삶에서 이완시간은 '0' 이라 해야할까. 아니, 이완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 깨달은 자일지도 모르겠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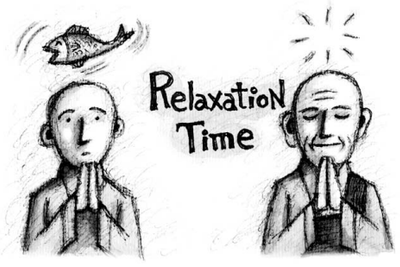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사찰 경내지 출토문화재 소유권 · 공고 관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입법 발의

국회의원 불자모임인 이타회장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 발의했다.

윤원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일부 법률을 개정하여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겠다고 서원했다"며 "국회 불자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불교계의 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입법 발의를 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사찰 경내지 출토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과 해당 사찰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6조는 매장 문화재의 소유권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장이 30일간의 공고를 통해 국가 귀속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30일간의 공고기간동안 해당 사찰이 출토문화재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유권 증명기간을 3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의 안건심사 후 4월 열리는 임시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불교학 결집대회 논문 170여편 발표

대회일정 확정 … 해외 불교학자만 80여명 참가 예정

4월 22~23일 해인사에서 열리는 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림)에서는 17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풍성한 불교학술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 불교학자가 80여명이나 발표자로 참가해 세계 불교학의 흐름을 읽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위원장 이중표)는 3월 17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대회장을 맡은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조직위원장 이중표 전남대 교수 고려대장경연구소 오윤희 소장, 김성철 동국대 교수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 일정 및 분과 확정 △개막전 행사 △참가자들 교통편 문제 △자원봉사단 구성 문제 등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 분과는 지역불교, 응용불교, 불교역사 분야 등 8개의 분과와 특수 분과 2개 등 10여개로, 발표 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 3시간으로 정해졌다.

조직위 측에 따르면 현재 발표 신청자는 170여명이며, 이미 80여 편의 논문이 접수됐다.

또 우희종 서울대 교수,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최훈동 한별정신병원장 등이 생명조작 · 위빠사나와 정신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이 많아 기대된다. 노병철 기자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시
● 내용 : 물이 있고 개울옆에 절 있음
● 법당 완벽
● 전국적으로 신도가 방문함
● 가액 : 3천 8백만원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829-7738

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IC 5분거리 대전역20분
● 대지 250평중 100평대지
● 법당 25평 산신각5평(목조)
● 부속건물18평 11평 주차장
● 가액 : 1억2천 시설및 집기완비
043)733-8186
011-9405-8186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평수: 45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시설완비 8년 운영
010-5458-6730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서울대 전철역 2분거리
● 2층 약 30평, 탱화 2점, 삼존불, 방2개, 주방 베란다
● 보증금 2,000원 월 1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755-5266
02)872-3387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불로동 부근
● 65평, 주방, 방3칸, 삼존불, 소불(지장불 100불, 관음불 100불)
●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 / 시설비 500만원
011-509-1525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주변 정남향)
● 대지: 88평(국유지 150평 사용가)
● 건물: 50평(방6, 부엌, 거실, 사무실), 법당: 10평
● 특징: 심야전기보일러(대형), 기름보일러 2대(예비)
● 가액: 3억2천만원
054)976-0900
017-565-1999

사찰터안내
● 산좋고 물맑은 충남공주시
● 무성산 기슭 임야 8천평내
● 주택2동 38평 25평
● 도량이 깊고 계곡물 흐르면서옹달샘 있음
041)854-0333

녹차밭안내
● 건물 3동
● 녹차공장
(녹차 채취가공가능)
011-838-6568

포교당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2동
● 중앙시장 내 상계역 부근 3층건물중 2층 3층
● 3층 34평 공양간 방 3개 2층 법당 34평
●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탱화, 스님방, 샤답실방
● 가액: 보증금 1천1백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800만원 포교당으로 최적지
010-5710-173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 지하철역 바로옆 부산도심지 지하철역 최고조건
● 평수: 20평
● 삼불부처님, 신중탱화, 후불탱화, 영가단, 각단탱화 등
● 방2, 주방, 욕실 시설완벽
● 신심이 돈독한 비구, 비구니스님에게 무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가액: 보증금 전세 2천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일체 없음
011-488-0316

토굴안내
● 위치 : 홍천군 남면
● 문중땅 200평 1년 도지세 쌀 6말
● 보일러, 방3, 거실, 텃밭, 시설완비
● 일반 가정집으로도 사용가능
● 가액: 1900만원
017-374-46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상가시장밀집지역
● 건평 : 60평, 시설일체 완비
● 내부시설 : 전통 황토, 쑥뜸 좌욕기 완비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치료하시는 스님,철학하시는 스님 최적합 요지 꼭 필요하신 분 전화요망
011-790-4809
033)631-4831

사찰안내
● 위치: 전북 완주 익산 IC에서 15분거리
● 40년된 사찰
● 법당 21평(목조 단청) 산신각 4평(목조 단청) 요사채 32평 2동, 전 670평
● 가액: 1억8천만원 절충가능
011-9643-7897

사찰안내
● 위치: 화성시 정남면 신의리
● 대지: 398평
● 대웅전 조립식 30평 부가옥 35평
● 가액 : 평당 110만원
010-8704-2247
011-299-446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합천 삼천포간 중간지역
● 부지임야(소나무) 4000평 법당 25평
●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기름보일러) 요사채 20평(나무 부엌)
● 가액: 2억2천만원
055)854-8526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 산신각 5평 흙벽돌로 완성
● 법당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 완공
● 요사채 40평 총 460평중 대지 290평
● 가액: 3억3천만원
011-477-7746

사찰(토굴)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 신북면
● 포천시내 5분거리
● 평수 : 등기 200평 (총 400평 하천부지 사용)
● 조립식 법당 20평, 요사 60평 방2개,사랑채15평,방1개,상담실1개
● 서울에서 40분거리, 차량진입가능
● 집기일체 양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1억
010-4510-0108
011-9126-895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 평수 420평, 일부 종교부지
● 시설: 법당, 산신각, 건물4동에 2동조립식 방5개, 공양간 10평
● 가액: 9천8백만원 공사비 2억2천만원 들어갔음
● 비구니스님 기도처 좋음
● 진주에서 차량으로 15분간 소요 사찰까지 차량진입 가
011-9399-7681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북수원 동신아파트 부근
● 평수 : 약 70평. 3층건물 중 3층 신축건물이며 옥상사용가능
● 법당, 스님, 친견실, 스님방, 공양간, 공양방, 샤워실 있음. 시설위치 특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10-6304-0036
※ 포교활동해보니 좋은곳입니다. 최상의 포교원으로 사정상 안내함